

# 모두 발언

2023. 7. 19. (수)  
기업은행 본점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 I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성태 기업은행장님과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님,

그리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여러분 및  
국민, 신한은행 부행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해 주실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금리·경기둔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큰 가운데  
대규모 수해 피해까지 발생한 現 시점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Ⅱ 現 狀 進 展

다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 지속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위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연체율(대출금용권) : '21말 0.43% → '23.3말 0.86%  
중소법인 연체율(은행권) : '22.6말 0.30% → '23.3말 0.45%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공장, 상가,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Ⅲ 금융권의 주도적 역할 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① 유동성 애로 차주의 정상화 지원 필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차주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를 기초로 자율적인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기업은행이 발표해주실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은행이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차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모범사례로서 여타 금융회사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 \* 여신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이자보상배율, 금리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취약차주를 선정, 업체가 신청하기 전 은행이 먼저 금리인하(최대 2%) 등 채무조정 실시 (23.상반기 중 251개사 채무조정 여신액 586억원)

아울러, '22.12월부터 금감원이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은행권의 자체 지원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3.상반기중 은행과 중진공이 공동으로 발굴한 총 94개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551억원, 중진공이 352억원 신규자금 지원

최근에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②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을 차질없이 지원]**

한편,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상환계획서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리인하, 분할상환 기간(최장 60개월)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지원도  
적극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농협중앙회가 소개해주실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 대하여  
신용 10년, 담보대출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이  
금융권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주 여러분들께서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현실성 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시고,

소득감소 등 재무상황 악화로  
상환계획서에 따른 상환이 어려워지면  
해당 금융회사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IV 맺음말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만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및 장기적인 수익기반 강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다양한 지원 노력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간담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금융회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감원에서도 관련부처·기관과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